

북한개발소식

11

2021 NOV | 통권 193호

| 이달의 주제 |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경향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경향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NOV

이달의 주제 :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경향

- 권두칼럼 **01**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경향
- 칼럼_1 **09** 안명철_ “22호 회령 정치범수용소 정치범 한진덕 이야기”
- 칼럼_2 **17** 문동희_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 정치범수용소 확대 中... 수감자 23만여 명 추정
- 칼럼_3 **23** 이승주_ 최근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인권침해실태 양상
- 북한 뉴스 **30** 북한, 잠수함에서 신형 SLBM 발사 실험 외
- 서평 **36** 평화의 아이들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해 기도합니다 ...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는 오르내리지만 그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이는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권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일종의 외교적, 정치적 카드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인권 문제가 일종의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인권 이슈를 의제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다른 협상 의제를 덮어버리거나 상대방을 자극해서 협상 전체를 어그러뜨리는 외교적 악수(惡手)로 보고 이를 금기시하기도 한다. 외교적 성과를 생각한다면 북한을 대할 때 인권 이슈를 뒤로 미루거나 다루지 않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이 결국 지금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심대한 인권 유린 사태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수많은 피해자

들과 도덕적 해이를 생각할 때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강력한 통제와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에서부터 임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제 노역 등 폭력적인 피해까지 북한의 인권 침해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에 대해 계속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위성사진 등을 통해(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들의 대략적인 위치와 규모 등이 확인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장기화를 명목으로 북한의 주민 통제가 강화되어왔고 최근에는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불리는 외부 사조 유입을 차단, 통제하는 법률 제정과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에 비해

많은 이들이 수감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수감되고 있다는 정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수감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만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중요한 이슈임에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 이슈를 기독교 박해와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범 수용소란

북한의 구금시설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정상적인 수감 시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수준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서의 고초나 강제복송을 당했던 당시의 고난을 증언할 때 언급되는 구금시설들의 비참한 현실과 심각한 인권 유린은 그분들이 수감되었던 곳이 정치범 수용소나 그에 준하는 끔찍한 시설인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경험이나 증언을 통해 언급되는 구금시설의 상당수는 조사를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이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구류장, 노동단련대, (우리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수감시설임에도 불

구하고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라 지칭하는 시설은 주로 관리소라 불리며 그 안에서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 구역으로 분리된다. 혁명화 구역은 교화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곳으로서 일정 기간 수감되었다가 석방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정치범을 수감하는 만큼 석방의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강철환 씨의 “수용소의 노래”나 정성산 씨의 “요덕 스토리” 등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요덕 수용소는 정치범 수용소이지만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이 함께 존재하는 수용소이다. 이 외에도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사회안전성(구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였고 일부는 혁명화 구역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해제(석방)이 가능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혁명화 구역 등에서 복역하다 해제된 탈북자들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의 상당부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혁명화 구역보다도 더욱 엄중한 수감시설인 완전통제구역은 석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화 구역 수감자들은 공민의 자격이 유지되지만 완전통제구역은 북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이 상실된다. 즉 완전통

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은 북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에 대한 증언은 매우 적다. 완전통제구역인 개천 14호 관리소에 2여년간 수감되었다가 북창 18호 관리소로 이감

되어 그곳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롱 로드 홈’ (Long Road Home: Testimony of a North Korean Camp Survivor)의 저자 김용 씨 등 극소수의 탈북자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안명철 씨 등을 통해 완전통제구역의 실태가 일부 확인되었다. 한 때 신동혁 씨가 본인을 완전통제구역(14호 관리소)에서 탈출하였다고 했지만,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존재하는 관리소는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구 북창)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최소한 5개의 수용소가 운영 중이며 18호 관리소는 북창에서 해체되어 개천으로 일부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감자 수가 대폭 축소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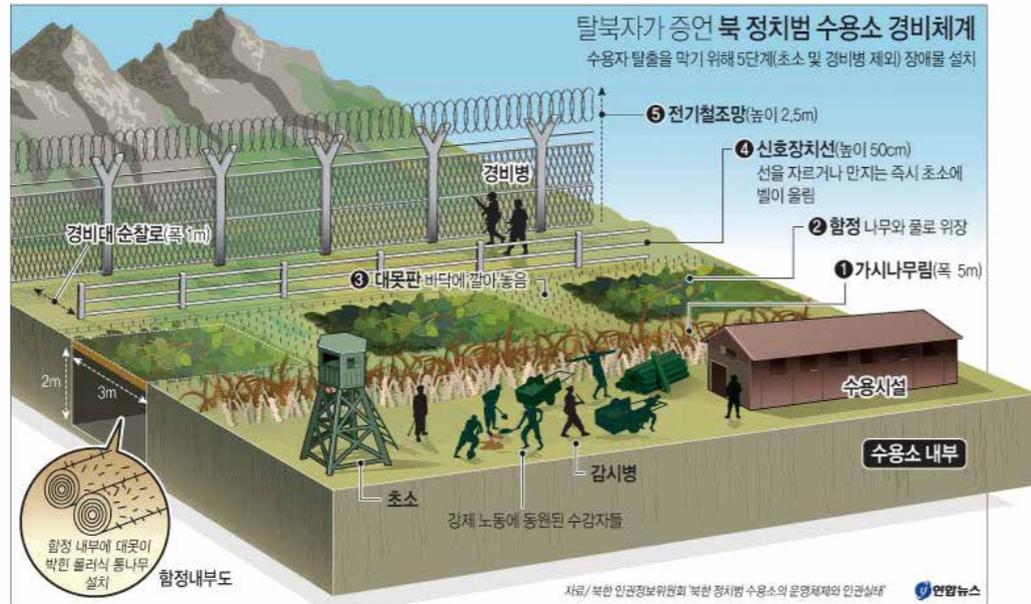


〈2019년 기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봉창리, 북창 제18호 관리소의 광산. (자료=북한인권시민연합)〉

으로 파악된다.¹ 하지만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18호 북창 관리소의 경우 다시 운영이 재개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었다.²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8호 북창 관리소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광범위한 석탄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였다.³

정치범 수용소 중 교도소 형태로 운영되는 청진 25호 관리소 (수성 교화소)를 제외

1 오경섭 외, (2021),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pp 406-417.
 2 홍국기, "北, 평남 18호 정치범 수용소 운영재개 정황", 연합뉴스 2016.09.30. <https://www.yna.co.kr/view/AKR20160930084500014>
 3 북한인권시민연합, 2021,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s://www.nkhr.or.kr/publications/조사보고서/보고서-북한의-피로-물든-석탄-수출-정권을-유지하는/>
 4 앞의 글, p 63.



반종빈 기자, 조숙빈 인턴기자 / 20130827
@yonhap_graphics(트위터)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한 정치범 수용소의 경비체계 (삽화=연합뉴스)〉

하면 대부분 마을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구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였던 ‘굴락’(Gulag)을 모방한 것으로 그 규모가 광역시 면적을 넘어가기도 한다. 관리소들은 주로 국가보위성에서 관리하지만 일부는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군부에서 관리하는 파악되지 않은 수용소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외곽에 철조망과 감시초소, 그리고 다양한 탈출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참혹하다. 먼저 수용소 내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다. 발로 걷

어차고 가격하는 등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고, 정치범수용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노동을 주로 하였으며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공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었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

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혁명화구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고 한다.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었다.⁵

이러한 인권 침해가 더욱 비인간적인 이유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수용자 상호 간의 감시와 밀고, 경쟁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차별적 보상을 통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데, 수용소 측은 음식, 수면시간, 그리고 결혼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성욕을 통제하거나 허용하는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상호간의 경쟁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은 좀 더 많은 식사와 수면시간 그리고 이성간의 성적 만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서 더욱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⁶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북한은 1947년부터 집단수용소를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에는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1950년 6·25 한국전

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⁷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사건) 이후부터로 종파분자들이 수용되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 분자 등을 수감하였다. 최근에는 탈북증가에 따라 남한행 기도와 남한주민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⁸ 수감자 중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범들도 있지만,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범죄자들도 상당수 수감되어 있다. 근래에는 한국과의 통화나 한국 영화 시청, 한국행을 기도하였다가 적발된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⁹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중 상당수는 연좌제로 인해 잡혀온 정치범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된다. 모든 정치범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좌제가 적용될 경우 수사나 예심 절차 없이 수감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감 사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면서 동시에 공포를 이용한 북한의 통제 방식을 보여

7 1945년 8월 16일 해방 직후의 정치적 공백상태의 혼란 수습, 치안확보, 개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여운형이 설립한 임시경찰기구인 ‘건국치안대’를 말한다.
8 이금순 외, (2013), 북한 정치범 수용소, 서울·통일연구원, pp 10-11.
9 오경섭 외, (2021), pp 409-414.

5 오경섭 외 (2021), pp 414-417.
6 국가인권위원회, (2009),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요약본), 서울·국가인권위원회, pp 17-20.

준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0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수집된 종교 박해 사례 중 종교가 확인되지 않은 39.1%를 제외하고도 기독교가 46.4%로 과반을 넘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¹⁰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 활동 적발 시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과반에 가까운 탈북자가 정치범 수용소 수감으로 답하였다.¹¹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 내에서 기독교 활동은 정치범으로 수감될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인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 사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동네 주민의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있었고, 2018년 4월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배포 및 선교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간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확인되었다.¹²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은 탈북자의 증언 및 위성사진으로 관찰된 수용소의 시설과 면

적 등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관점에 따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지만 2000년도 후반 기준으로 수감자 수는 대략 20만 가량으로 추정되었다.¹³ 이후 통일연구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대략 8만에서 12만 명 내외로 수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8호 관리소(북창)가 개천으로 이전하면서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2012년 22호 관리소(회령)가 폐지된 것 등을 감안하여 추정치가 조정된 것이다.¹⁴ 그렇지만 엔케이워치는 일부 수용소들이 해체되기는 했지만 그곳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남아있는 수용소들이 확장된 사항이 있다고 분석한다.¹⁵ 게다가 폐쇄되었다고 알려진 북창 18호 관리소의 운영 재개 사항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수감자 추정치는 더욱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통제 강화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따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다수 증가했다고 보도하며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수를 23만 2

13 국가인권위, (2009), p. 10.

14 이금순 외, (2013), pp. 19-21.

15 Ann Myeong Cheol et al., 2020,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eoul: NK Watch. pp 51-67. <http://www.nkwatch.org/?p=17388>

천여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¹⁶

최근 동향과 우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 엔케이워치는 작년 5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이슈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의하며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변호와 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 구금시설에서 고문 및 구타가 감소하고 위생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축소되었고 2012년에도 일부를 해체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¹⁷ 이러한 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16 문동희,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총 23만2천명…작년 3월비 2만3천명 늘어”, 데일리NK 2021.07.24. <https://www.dailynk.com/210727-5/>

17 Ann Myeong Cheol et al., (2020), pp 47-85.

자 하고 외부와의 교류도 증가한다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예상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정책이 국제사회에 대한 고려나 외부와의 소통이 아닌 독자 생존과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그간 북한은 시장 경제가 발달하며 장마당이 주민 생계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부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주민들도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부분적으로나마 비교적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방역을 명목으로 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매우 강화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통제 기조가 방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역을 위한 국경 차단과 주민 이동 통제 강화가 장마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와 함께 국가의 경제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작년 말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외부사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행보는 경제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의 통제력

10 오경섭 외, (2021), pp 147-151

11 위의 책, pp. 179-180.

12 오경섭 외, (2021), p. 412.

과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응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 기조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강화된 단속과 처벌로 인한 인권 침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도 증가할 것이며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의 안전 역시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북한이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정치범 수용소 이슈를 포함한 북한 전반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향에 우려와 경각심을 가지며 이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인간을 인간취급하지

않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는 하루 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희생되었거나 현재도 수감되어있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가 말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와 노력으로 참여해야 할 주체일 것이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대외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통계나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심을 믿는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부터 시작하여 한국 교회가 하루 속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 완화와 수용소 철폐, 그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 🙏

“22호 회령 정치범수용소 정치범 한진덕 이야기”

안명철 (전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사)엔케이워치 대표)

나의 고향은 함경남도 홍원군이다.

북한의 “핵심계급” 이었던 부모님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에 열중하던 중 국가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차출되어 정치범수용소를 지키는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도중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초기에 부친이 김일성의 식량정책을 비판하는 취중 발언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연좌제”에 걸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나는 수용소를 탈출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의 가해자이며 또한 피해자이기도 한 기구한 운명을 지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완전통제구역”인 정치범수용소 4곳에서 근무한 경험의 소

유자이며 근무 기간에 만났던 수많은 정치범 수감자들 가운데 특히 한 20대의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성의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기록해 본다.

그녀의 이름은 한진덕이다.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북한은 수용소의 비밀과 보안 유지를 위해 일부 수용소들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여파로 3년간 근무하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주둔했던 13호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그곳에 간혀있던 정치범들은 다른 수용소들에 분산 수용되고 나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주둔한 22호 정치범수용소로 발령받아 근무한 지 한 달이 안 되던 시기이다.



(2011년 촬영된 22호 관리소(회령)의 구금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함경북도 회령, 온성, 새별 지역에 걸쳐 있었던 '22호 관리소'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운영되었으며 12년도에 해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디지털글로브))

당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미국의 병커버스터 폭탄의 위력에 놀란 북한은 이미 만들어 놓은 지하터널들은 더욱 깊숙한 땅속으로 숨어들거나 신규로 건설하는 등의 대대적인 갱도 공사들이 진행되었고 이는 전국의 정치범수용소들도 마찬가지였다.

22호 정치범수용소에서도 이 공사에 약 200여명의 정치범들을 동원하였는데 당시 26살이던 한진덕이 발파공으로 참여하였고 나는 이 현장을 감시하는 경비대 막사에서 한 명의 조원을 데리고 감시 근무와 돼지를 키우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수용소 내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남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하였으며 항상 웃는 얼굴의 쾌활한 성격으로 인해 책임자급 정치범 간부들도 그녀를 아끼어 그나마 갱도 공사에서 수월한 정치범들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식사 당번을 주로 시켰다.

그녀는 큰아버지가 국가보위성 소속 고위급 간부인 대좌로 근무하던 중 김일성이 전 보위부장이던 김병하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면서 그 여파로 부친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그녀가 7살 되던 해에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원들에 체포되어 온 가족이 트럭에 실려 수용소로 끌려 왔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이곳 22호 수용소의 탄광에

서 강제 노역을 하던 중 “대 건설” 대상으로 뽑혀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 건설” 대상들이란 수감자 중에 신체가 건장한 남녀 정치범들을 선발하여 (이중 처단 대상자도 포함) 핵 기지건설이나 위험한 토목공사, 위험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에 노동력으로 공출된다는 뜻이며 이때 수용소에서는 정치범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대 건설”에 나가서 일을 잘하면 출소시켜준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으며 이렇게 송출되어 동원되었던 정치범들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느 날 수용소 본부에서 감시 막사에 백살구(과일)를 한 트럭을 싣고 왔는데 이 살구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상하고 냄새가 고약해 사람은 물론이고 돼지들도 잘 먹지 않게 되자 이것을 정치범들에게 나눠 주면서 살구씨를 받아내라고 했고 백살구씨의 맛은 잣 맛같이 고소하고 한약재로 쓰이며 회령지방에서만 생산되는 계절 과일이다.

백살구가 한 트럭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은 약 5Kg을 한 양동이 기준으로 하면 스물 양동이는 더 나왔는데 내가 열다섯 양동이만 받아내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눈치 빠른 정치범 책임자는 그날 저녁 한진덕에게 지시

하여 그 일을 시켰다.

다음 날 아침에 와보니 깨끗이 씻어진 열다섯 양동이의 살구씨가 막사 앞에 놓여있었고 트럭 한 대 분량의 백살구와 남은 씨는 일하는 정치범들끼리 모두 먹어 치웠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이 갱도 공사를 진행하는 5개월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더 있었다.

그 시절 북한에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유행가 형태의 가요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불리고 있었고 나도 한국에 와서야 이 가요들이 남한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젊은 세대들이 즐겨 부르는 유행가로 알고 있어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노래를 기타를 치가며 열심히 배우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이후에 막사에서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며 연습하고 있었는데 막사에 있는 수돗가에 물을 뜨러 왔던 그녀가 문밖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를 몰래 엿듣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에 문을 박차고 나간 나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는데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일이 누설되어 다른 경비대원 동료들과 수용소의 본부에서 이것을 알게 되는 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모습을 그린 삽화. 수감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모두 땀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어느 천이 본바탕인지 가려볼 수 없을 정도로 푹고 기워 너털너털하다. 신발도 없어 타이어를 잘라 발을 감싸고 다닌다. (자료=엔케이워치)>

간 나는 출처가 불명확한 노래를 계급적 원수들에게 몰래 가르쳐 주고 정치범들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수용소 밖 외부 소식을 전달 해주었다는 식으로 평가 해석되어 사상검토의 대상이 되며 또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였다.

몹시 당황했던 나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협박하면서 감히 경비대 선생님을 엿본 죄에 대한 추궁과 이것에 대한 비밀을 지켜줄 것을 강요하였는데 뜻밖에 그녀의 대답이 나를 더욱 난처하게 하였다.

“선생님, 경비대 선생님들은 다 무서운 사

람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만 엿듣게 되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고 힘들 때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부르려고 하니 그 노래를 몰래 가르쳐 주심 안됩니까?”

많이 당황하였지만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그녀의 요구에 그동안 지켜 보아왔던 그녀의 성품과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무작정 믿어야만 하는 기막힌 상황과 꿈과 희망도 없이 사는 그녀를 위로하는 마음이 뒤섞여 선택의 여지도 없이 노랫말을 몰래 적어

주었으며 음절은 기타 음악으로 문밖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용소 경비대에 입대한 후 처음으로 당국에서 금기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나는 그녀가 약속한 대로 이 일에 대해 함구하길 바라는 간절하고도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무렵에 나의 직속상관이던 분대장 량기철이 내가 있던 막사에 이유 없는 출입이 잦았고 얼마 후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아 정치범 책임자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어보니 수용소 본부에서 야밤에 체포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나는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며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 뒤 갑자기 ‘대대 모였’ 하는 비상 소집 명령으로 수용소 본부 대대 인원 전체가 모여 정렬한 가운데 대대장 상좌(대령급) 강소남이 명령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국가보위부 7국 명령 제007호. 다음 군인에 대한 출당, 철칙, 생활 제대에 대하여.

중사 량기철, 1968년생, 1984년 입대. 이 동무는 우리 당의 계급 노선을 어기고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을 동정하였고 혁명의 투항 분자로 변절하였다. 이 동무는 우리 당에서 그만큼 정치범들을 동정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별릴데 대하여 수백 번 강조하였지만 이를 어기고 정치범 계집년과 한 몸이 되어 혁명을 배신하였다. 따라서 중사 량기철을 출당, 철칙, 생활 제대시킨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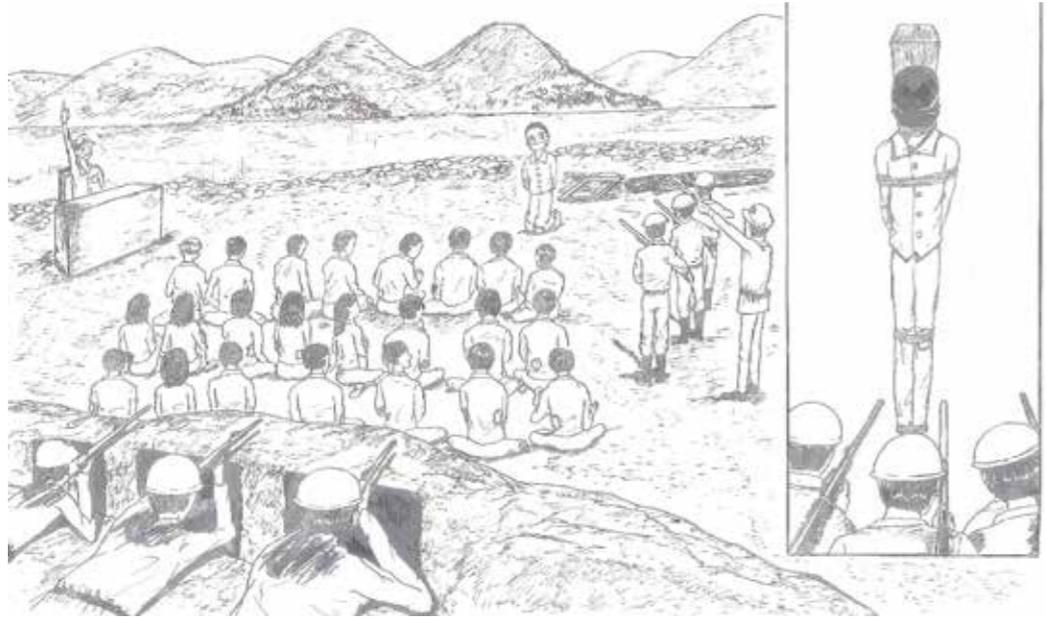
대열 안이 한순간 술렁거렸는데 대대 참모장이 량기철을 불러냈다.

“중사 량기철, 대오 앞 20보 앞으로 갔!”

고개를 푹 떨구고 대오 앞으로 나간 량기철의 어깨에서 계급장이 강제로 뜯기고 바로 한 시간 뒤에는 그의 고향 지역에 있는 보위부로 연행되고 그곳에서 또다시 광산으로 추방되었으며 그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감시를 받으며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정치범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김씨 일가가 지시한 “정치범들은 3대를 멸하라!”는 교시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일이며 이는 국가보위부와 수용소 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범을 동정하는 것을 최악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람은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되는 혁명의 배신자로서 낙인되는 일이다.

이 사건의 내막은 내가 근무하던 경비 막사에 량기철이 오고 가면서 얼굴이 반반하고 웃음기가 상냥한 한진덕을 보게 되었고 초



<15호 관리소(요덕)의 공개처형을 묘사한 삽화. 인간 이하의 학대를 견디기 힘들어 작업장을 잠깐이라도 이탈한 사람 사람들은 도주자로 몰려 공개처형을 당한다. 공개처형 집행 시 폭동이 일어나면 제압하기 위해 경비병들이 기관총까지 걸어놓은 삼엄한 상태에서 형을 집행한다 (자료=엔케이워치)>

소장으로서 야간순찰을 핑계로 야밤에 그녀를 막사에 불러들여 경비대 선생의 위력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고 이를 동료 정치범이 몰래 보고 갱도 공사를 담당한 보위원에게 보고하면서 들통나게 되었다.

한진덕은 억울하게 강간을 당하고도 경비대 선생님을 유혹하여 혁명의 배신자로 만들었다는 “유혹한 죄”로 인해 구류장에 끌려가서 여성으로서 기능을 모두 상실한 성고문과 불고문을 포함한 모진 고문을 받은 뒤에 목숨은 살려주는 대신 수용소의 탄광일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막장에서 6개월 동안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거운 석탄

을 실은 광차를 맨몸으로 끌어야 하는 근신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운전병으로 탄광에 석탄을 실으러 갔다가 길가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내가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일에 대하여 일절 발설하지 않은 그녀의 의리에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녀가 당한 고초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겹쳤으며 그녀를 또다시 만난 것은 그 후 일 년이 지난 22호 수용소 “굴산지구” 내의 “43 작업반” 탄광장에

서였다.

수용소의 농장 지역에 있는 탈곡장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결하는 공터로서 이곳에서 노역하는 정치범들은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다.

나는 이곳에서 탄광 처벌 노역 중 힘에 부쳐 무거운 광차를 놓치게 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그녀의 두 다리 위로 광차가 타고 넘어가 두 다리가 동시에 절단되고 다행히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장애를 입고 두 무릎에 자동차 페타이어를 반으로 쪼개어 새끼줄로 묶고 앉아 옥수수 껍질을 까는 일을 하고 있던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녀를 바라본 나는 더 이상할 말을 잃었으며 보통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어떤 강력한 힘과 믿음의 소망이 그녀를 모진 고난 속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8년간 근무했던 정치범수용소들에는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22호 수용소는 “중추골 지구”라는 농장 지역이 바로 그런 곳으로서 당시 70대를 넘긴 나이가 많은 여성 정치범들이 수감 되어 있었으며 나는 운전병

으로 수용소 곳곳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였기에 이곳을 관리 담당하는 보위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결같이 담당 보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도 미신이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몇 명의 미친 노친들이 있는데 밥을 먹거나 노역을 하는 중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며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마음대로 때리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말로만 쌍욕을 하며 정신병자 취급만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원들과 경비대원들에게 매주, 매월, 매 분기에 “계급투쟁의 월간”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정치범들 속에 박아놓은 정보원들을 통해 수집된 수감자들의 동향이나 입수된 자료들을 토대로 사상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들이 수감 되어 있고 이들은 겉으로는 김씨 일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굳게 믿는 정치범들이 존재하며 간혹 성경 구절을 메모하여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적발된 일들도 있으니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이 이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 정치범수용소 확대 中... 수감자 23만여 명 추정

문동희 (데일리 NK)

교육의 주된 목표였다.

나는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한진덕을 생각하며 그녀가 겪은 모진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남으려는 불굴의 의지는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의 작용으로서 그녀 또한 수용소 안에서 만난 숨은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한진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혀서 생과사를 넘나들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을

바라는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의 영혼과 이들의 광명이 하루빨리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지난해보다 최소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감시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이후 방역수칙 위반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자까지 수용소로 보내면서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 체제 유지에 강력한 수단, 정치범수용소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운영 초기 주로 정치범죄 위반자들이 수용되었다. 북한 형법

제3장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정치범죄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 범죄에 해당할 경우 정치범으로 규정돼 수용소로 보내진다.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는 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으며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됐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 사건' (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 사건) 때 종파 분자들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되면서 형법상 정치범이 아닌 유일사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감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탈북자가 늘어나자 이들을 '반민족행위자'라고 낙인찍어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정권 초기부터 정권



<2020년 촬영된 승호구역 수용소 시설 위성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¹⁾>

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최근 들어 정치범수용소가 확대되는 것은 체제 결속력이 떨어져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경제난에 따른 민심 동요 및 사상 이완에 대해 통제·공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년 사이 수용소 세 곳 신설...
전부 사회안전성 산하**

최근 1년 사이 신설된 수용소는 확인된 곳은 황해북도 승호리, 황해북도 평산군, 평

안북도 피현군이다.

황해북도 승호리 수용소는 지난해 말 새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화천 관리소 작업장이 있던 탄광 골에 울타리를 치고 예전 건물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소를 새로 만들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자를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면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신규 시설을 만든 것이다.

황해북도 승호구역 화천동에 위치했던 26호 화천 정치범수용소(관리소)는 국제 인권 단체들의 인권 유린 지적에 지난 1991년 폐쇄됐다. 수용소는 해체 후 승호교화소로 변경됐으며 2012년 승호단련대로 규모가 축소됐다. 과거 화천 정치범수용소 시설 중 승호 단련대가 이용하지 않는 곳 중 하나를 활용해 관리소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황해북도 평산군의 정치범수용소는 우리나라 공장 인근으로 알려졌다. 평산은 북한에서 가장 큰 우라늄석 채광 광산과 정련·정광 시설이 있다. 평산에 신설되는 관리소의 정확한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 관리소에 수감돼 있던 인원 일부를 이감시키고 일부는 새로 수감되는 수용자들을 입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라늄 관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9년에 촬영된 피현벽돌공장과 구금시설 위성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²⁾>

서 관리소 수감자를 동원해 평산 광산과 공장에 인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련의 경우 일반 주민이 꺼리는 위험 작업일 뿐만 아니라 1급 기밀 사항에 해당해 인력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관리소를 공장 인근에 설치하고 수감자들을 동원하려는 모습이다.

평안북도 피현군에 신설된 관리소는 '27호 관리소'로 불린다. 지난 8월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평안북도 피현군에 노동교화소로 추정되는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설이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 관리소였다.

이와 관련, 교화소는 북한 형법 상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한국의 교도소 격이며 관리소는 정치범이 수감되는 수용소이다.

27호 관리소는 노동단련대로 운영되던 피현벽돌공장이 있던 곳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27호 관리소 수감자들은 인근의 피현벽돌공장에 배속돼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그동안 정치범수용소가 없었던 평안북도에 신설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김일성 유훈 교시로 공업도시인 평안북도와 자강도에는 관리소를 만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례적 일로 평가된다.

최근 만들어진 수용소는 모두 사회안전성이 관리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관리소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에 구금될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사회안전성 산하의 관리소에서는 모범수형자로 판단되면 구금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안전성이 관리하는 수용소를 늘렸다는 점에서 당국의 사회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체포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4호(개천), 15호(요덕), 16호(화성), 25호(청진) 관리소는 국가보위성, 17호(개천), 18호(북창)는 사회안전성이 관리 주체이다.

1 Joseph S. Bermudez, Jr., et all. 2021.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 8, Sŭngho-ri (승호리) - Update",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https://www.hrnk.org/uploads/pdfs/Bermudez_KHS8_FINAL_2021_10_04.pdf>

2 Joseph S. Bermudez, Jr., et all. 2021. "North Korea's Potential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at Sŏnhwa-dong (선화동)",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https://www.hrnk.org/uploads/pdfs/Bermudez_Sonhwa_FINAL_2021_10_04.pdf>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정치범수용소 行... 지난해 대비 2만여 명 이상 증가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해 법제 정비를 지속 꾀했다. 김 위원장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주민행정법, 형법, 행정처벌법 등의 주민 통제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지난해엔 비상방역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를 주민 통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비상방역법에는 ▲방역위험 표시가 있는 구역이나 건물, 격리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격리장소 내 사람들과 접촉 및 물건 교환 금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유지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 금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풍선이나 이상한 물건, 출처가 불명한 물건을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신고해야 할 것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상방역법에는 처벌 관련 내용이 다수 삽입(70개의 조문 중 12개)돼 있다. 해당 법 처벌 조항에는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에 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은 비상 방역 조치를 최고의 당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일은 나라의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특대형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국가 비상 방역 규정 미준수한 주민을 당 정책

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워 특수범 취급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 방역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직접 챙기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6·29)에서 책임 간부들의 방역 태만으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의 한 주민 역시 데일리NK에 “방역 수칙 위반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어기거나 반대, 불이행한 일로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방역 수칙 미준수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고의로 당 정책을 위반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된다는 말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방역 수칙 위반자는 당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외부정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체제 이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들 중 외부 미디어를 내부로 유입하거나 유포한 경우 사형하거나 가족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전군

대적인 연좌제를 고집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데일리NK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범죄자의 가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없다. 북한이 자의적 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심지어 재판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애민 정신을 강조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뒤로는 가혹한 철권통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독재자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 콘텐츠 통제와 처벌이 김정일 시대보다 심하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호 요덕수용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자가 약 1,800여 명 늘었다. 25호 청진 수성 관리는 신입 입소생 500~600명과 조동(이동, 이감자를 의미)까지 합쳐 1,000여 명 이상이 늘어났다. 17호 개천수용소와 18호 북창수용소에서 각각 200여 명씩 수성 관리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불성실한 수감자들을 국가보위성이 관리하는 관리소로 보냈다는 뜻으로, 점점 관리 강도를 높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천과 북창 수용소 수감 인원은 각각 200명이 줄어든 1만 9,000명, 2만 4,000명이 됐으며

승호리 수용소는 2만 1,000명 이상, 피현 관리소는 52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해북도 평산 정치범수용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데일리NK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최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지난해 3월 기준 약 20만 9천 명에서 최소 2만 3,920여 명이 증가한 23만 2,920여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비상방역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이외에 다른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주민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남 기도자, 불법 월경, 한국인 접촉자, 군수 비리 연루자, 말 반동, 정책 시비자 등도 이제는 관리소에 끌려가고 있다.

가혹한 수감 환경,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수감자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민권을 정지당한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를 배신자일 뿐 공민(公民)이 아니라는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들의 건강이나 죽음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감자들의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최근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인권침해실태 양상

- 정치범 적용 확대와 최근 사회 변화상을 중심으로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북한인권감시본부 본부장)

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수감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수에 노출돼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여기에 식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은 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들은 가혹한 수감 환경에서 임금이나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외부 주민보다 10배가량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가혹한 징벌과제에 내몰리고 있다. 수감자들은 식량과 의복, 안전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교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감자들을 위협하고 무보수 중노동에 내모는 일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ILO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이런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도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에는 누구도 강제노동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

격법 위반자는 당과 국가에 대해 반항하고 금지한 일을 자행하는 사상적으로 개조 안되는 ‘악질’로 취급해 더욱 가혹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일명 ‘노란 물(반사회주의)’을 빼고 전 사회적으로 ‘빨간 물(사회주의)’을 들이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모두 해체하며, 정치적 의견을 내거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적에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한 사례가 있다.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힘을 모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주장해야 할 때이다. ☹️

1. 들어가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 구금시설로, 북한 법률과 형행체계에서 그 설립 근거와 운영 체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정치범의 정의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및 경험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을 통해 의존하여 정의되어 왔으며, 수감자들이 체포되거나 수용된 사유, 조사 내용 및 처벌 근거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와 수사를 거쳐 확정되며, 그 처벌수준과 수용시설 등을 결정하는 주체 기관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안전보위기관

으로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치범의 정의 또한 위의 관할 범주와 동일시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종교 박해의 양상 또한 크게 위의 관할권의 범주 안에서 법적 처벌의 근거를 가졌다. 즉, 북한 사회 내에서 종교와 관련한 행위는 국가적 보위(保衛)를 저해하는 ‘정치적 범죄 행위’로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강도 높은 방법에는 사형과 정치범수용소에의 수감인 점을 볼 때, ‘종교’를 둘러싼 억압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정치범’의 사회적 정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북한 당국이 시기와 사안에 따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확장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법적 규정에 대한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두 가지의 새로운 통제 양상을 관련시켜 살펴보자면, 하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북한 당국이 엄격한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 19의 방역 수칙을 어기는 탈북 시도자에 대해 ‘즉각 발포’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도입으로 외부의 콘텐츠 유입과 향유, 사회 내부 전파 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의 도입은 북한 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억압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가 되며, 외부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 내부에 외부 사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콘텐츠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며, ‘법의 도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 사회의 통제 수준은 북한만이 운영하는 특수 시설인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로 알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정치범으로의 처벌은 곧 ‘사회적인 사형’과 다름없다. 그 이유는 정치범으로 관리소에 구금 될 경우, 공민권을 박탈당

하는 동시에, 일가족이 연좌제로 동반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누구든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사회 내부에 만연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19와 외부 문화 유입 통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 현황과 그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조망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가 해당 시설을 직접 경험한 수감자들 중심으로 도출된다는 점, 김정은 집권기 탈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코로나 19의 상황까지 겹쳐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의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필연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증언 수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된 기존의 방식과 내부의 인권침해 실상을 토대로, 현재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변화상을 추가해 종합적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상황을 분석해볼 수 있다.

2.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절차적 적법성 문제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범수용소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나 말은 물론, 종교와 신념에 대

한 행위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접근하기 어려움에도 그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경우, 살아서 나오기 힘든 종신형에 처하며, 가족도 함께 수감되는 연좌제가 적용된

다. 이렇게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마련된 이유는 정치범수용소가 바로 김일성 유일지도 체계 및 김정일 후계 체계 확립과정에서 반대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인 핵심 세력 들을 숙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여, 당, 정, 군 핵심일꾼들을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범수용소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심층 조사한 53명의 증언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규명한 운영현황¹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는 최대 15곳이 운영된 바 있으며, 신설과 이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는 8~9곳이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함



〈올해 5월 촬영된 25호 관리소(청진, 수성 교화소)의 모습(북한인권위원회HRNK)〉

경북도 2곳(화성16호, 청진 25호), 함경남도 1곳(요덕15호), 평안남도 2곳(개천 14, 17호, 북창 18호), 황해북도 승호리 관리소, 평산 관리소 등 이다.

대표적인 시설인 화성 16호는 함경북도 화성군 소재로,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로부터 탈출해 나와 내부 실상이 밝혀진 사례가 없어 운영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SAI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가 확장되고 내부 시설을 보완하는 등 16호 관리소에 내부 시설 상의 변화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하는 수성 25호의 경우 마찬가지로 완전통제구역이며, 설립 시기는 밝혀진 바 없다. 이러한 완전통제구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최근의 정보가 미비한 상황이다.

함경남도에 위치한 요덕 15호의 경우,

1 윤여상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2 Joseph S. Bermudez, Jr., et al. 2021.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25, Update 3",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https://www.hrnk.org/uploads/pdfs/Bermudez_KLS25_FINAL.pdf>

1970년 전후 설립된 뒤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 구역이 함께 운영되며, 20여 명의 혁명화 구역 수감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일부 변화의 양상이 노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비공식적 명칭으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2915군부대로 불리며, 관리소 수감자조차 공식적인 명칭과 자신의 속한 수감시설의 정보에 대해 상이하게 증언하는 등 철저히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 승호리 관리소와 평산 관리소는 새롭게 신설된 관리소로 보고된 바 있다.³

또한 평안북도 피현군 선화동에 정치범수용소(27호)를 신설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최근 강력한 사회통제 과정에서 관리소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⁴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며, 외부에 노출된 정치범수용소는 이전하거나 폐쇄하고,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용소를 설립, 확대시키는 변화를 가했다. 즉, 수용소의 존재는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설의 변형과 유지, 부분적 확대를 통해 비밀스럽게 운영해온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

고 4개의 수용소를 폐쇄했다는 사실은 외부 사회의 관심과 압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당국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수용소를 결코 완전하게 폐쇄하지 못하는 ‘정치적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한 기저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통제하는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사회에서 ‘실종’으로 처리된 경우는 공식적 절차 없이 미상의 장소로 체포 및 연행, 인신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을 제시받거나 체포 사유를 설명 받는 것 없이 국가보위부 또는 담당기관원에 의해 임의적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으로 체포된 당사자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조사할 것이 있다가거나 가족 중 당사자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함께 체포한다’고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자들은 자신의 체포한 사람의 소속기관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담당 조사기관인 국가보위부에서 조사와 예심을 거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 이송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증언 내용에 따르면 예심이 종료되는 시

점에 국가보위부는 조사 대상자의 자술서에 피의자의 수표(사인)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담당자와 상급자가 참여한 가운데 죄의 내용과 인정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한 뒤 상급자가 수용소 수감과 형기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부는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거나 통보절차도 생략되고 체포와 동시에 수용소에 수감된 사례도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는 사실상 상당수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이러한 체포와 조사, 이송과정에 대한 적법성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

3.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 실태와 코로나 19 상황 하의 심각성

이렇듯 ‘공포심’을 조장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대부분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서 관리하며, 폐쇄되었지만 일부 수용소의 경우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의 관리 하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민보안부 관리 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비교하면 통제와 억압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민 인권의 측면에서 사회복귀의 가능성 유무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완전통제구역은 사망 후에도 시신이 수용소 밖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자체가 법에 기반을 둔 구금시설이 아니므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지형에 위치하며, 수감자의 도주를 막는 인위적 경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 당국은 반혁명분자들을 수감시켜 통제하며, 외부에는 이러한 시설의 노출을 철저히 막는 이중적 장치를 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적은 수의 관리자로 많은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상하수직관계의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 감시 체계를 두며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 상 조직적으로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 집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총화, 학습, 강연뿐만 아니라 연대적 책임 부과, 결혼, 음식 제공, 수면시간 조절, 노동력 착취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수감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감자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리자들은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더욱 가혹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적 가혹행위는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내부의 조직적 구조는 곧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규명의 대상이 된다. 일상적 구타는 매우 잦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나타날 경우, 작업 목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사

3 “정치범수감자 총 23만2천명...작년 3월 比 2만 3천명 늘어”, 『데일리NK』 (2021. 07. 27), <<https://www.dailynk.com/210727-5/>>

4 “평북 피현군 시설, 교화소 아닌 ‘정치범수용소’...520명 수감 중”, 『데일리NK』 (2021. 09. 20), <<https://www.dailynk.com/평북-피현군-시설-교화소-아닌-정치범수용소-52/>>



〈15호 관리소 (요덕)의 인권 상황을 묘사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한 장면〉

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처벌이 부여될 수 있다.

수용소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류장에 구금되어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이나 간단한 결정 절차를 통해 처벌을 부여한다. 대부분 가장 힘든 작업장에 재배치하여 노동형을 받거나, 이감, 공개처형, 비밀 처형 등 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범관리소는 하나의 구금시설이 아닌 내부에서 하나의 완전한 사회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국민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배신자’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수감시설 내 생활의 측면에서도 인권 보장을 받기 어렵다. 공식적인 근거 자료는 부재하지만, 관리소 내부에는 ‘수감자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수감자들이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체계와 정책, 규정이 존재함을 다수의 증언자가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수감시설 내에 위생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용소는 집체적 거주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해 내는 생산지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착취와 노동 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사건사고 발생에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 19의 발생 이후에도 관리소 시설 내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방역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4. 전망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기록하고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79,759건 중 5,796건이 정치범수용소과 관련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 이는 사건발생 장소 종류를 기준으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관리소 내부에서 미비한 시설과 운영상의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

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구금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받는 피해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살펴본다면 그 사건피해의 규모와 양상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민심의 동요를 촉발하는 어떤 사건과 사안에 있어 엄격한 처벌 잣대를 적용하며,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하게 정치범수용소의 시설을 유지, 확장, 보수하며 지속적인 운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의 종교 박해와 종교인들을 적대계급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영국 국회보고서에서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종교 행위’를 둘러싼 북한 단속과 통제는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헌법 68조)고 밝힌 당국의 설명은 현실과 모순되고 있다.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은 현재 DB에 1,427건이 보유중이며, 이중 정치범수용소 관련 사건은 275건에 해당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사건으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된 경우는 대부분 수감자가 재판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죄를 규명할 수 없으며 수감되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박해를 포함한 사회권 억압의 양상은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사회 통제가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인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종교를 포함한 8대 감시 테마(종교, 사형, 구금시설, 핵, 군 인권, 해외 인권, 마약, UPR)를 선정하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 추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러한 감시에서 최우선적 과제로서 북한 주민의 일상 속 종교 자유 확대를 위하여 경주하고 있다. 🐟

+ 북한, 잠수함에서 신형 SLBM 발사 실험



<북한이 10월 20일 공개한 신형 SLBM 잠수함 시험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측은 9월 15일 독자 개발한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는데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을 SLBM 운용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중 발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이날 발표에서 5년 전 잠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SLBM은 북한이 지난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략회의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 기동 등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공 도약 기동은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을 했다는 뜻으로 풀의되는데,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할 경우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참관하지 않았다. 북한이 참관자의 격을 낮춘 것은 지난달 남측의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성공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함 발사를 강조한 것도 이런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한 신형 SLBM은 남한 주요 시설과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개발된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했다. 🐼

+ 남북 통신연락선 55일 만에 복원



<10월 4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9월 15일 열차를 이용 동해상으로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복원됐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남북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5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했지만, 한미연합 훈련을 이유로 2주 만에 다시 ‘불통’이 됐다.

통일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통신선 복구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들에서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연락선

재개를 예고했다. 다만 “남조선 당국은 통신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기서 ‘중대과제’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차례로 언급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 등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고 =BBC 코리아, 10월 4일) 🐼

+ IAEA 사무총장 “북한 가능한 모든 핵 활동 진행…핵시설 확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 "(사찰이 중단된)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0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스티븐재단에서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처리 능력과 영변 이외 지역의 핵 시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곳에 있는 것은 더는 복합물(compound)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할 검증과 보호 작업은 거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그는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엔 "그들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

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분리(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은 아마도 실제 진행 중일 것이고, 다른 시설들도 가동 중이라는 신호가 있다"며 "이것이 내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의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장 큰 걱정은 민주적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긴장이 줄어들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AEA는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6월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9월 20일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는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추출)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연합뉴스)

+ 김정은 “주적은 남한·미국 아닌 전쟁 그 자체...우선 강해져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이 군사장비 현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미국이나 남한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 하에서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게 지상 책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협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진단하고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3년 전인 2018년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

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조성된 시기로 이후 2019년 4월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미-북,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미국이나 한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면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을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며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선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를 넘은 노골화된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비 현대화 명분으로 '대북 억지력'을 내세우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북한의 자위적 권리를 훼손하려고 할 경우 용납하지 않고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을 맞아 열병식 대신 전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전람회에 지난 5년간 개발한 무장장비들이 전시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선언했다고 전했다. 전

람회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5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전시됐다. (참고: 언론보도종합) 

+ 북한 주민, 딸감 가격 급등에 큰 시름



〈북한 기정동 마을에 북한 주민들이 딸감을 수집하고 있다. (연합뉴스=RFA)〉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북한에서 딸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 딸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북한 내 석탄과 딸나무(화목) 가격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경우 작년 이맘때쯤 1톤당 내화 20만원 정도 하던 석탄값이 올해는 30만원에서 비싼 곳은 40만원까지 대폭 올랐다. 장작의 경우도 굵기 7~10cm, 길이50cm 짜리 장작 10개비를 묶은 1단을 지난해에

는 내화 8000~10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시장에서 이런 장작 1단을 사려면 20000~25000원을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격 급등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주민 이동 통제로 유통의 어려움 외에도 나무와 석탄을 비롯한 연료 자원 고갈과 특히 올해 함북도 내 탄광들이 전기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석탄을 계획량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그나마 생산해낸 석탄을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시장에 석탄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큰 것으로 소식통은 설명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 역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석탄 가격이 급등해 질 좋은 무연탄은 1톤에 보통 40만원 이상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올해는 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이 찾아와 주민들속에서는 딸감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참고=자유아시아방송, 10월 21일) 

+ 북한 9월 대 중국 교역 14개월만에 최대...4개월 연속 증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 통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북중간 공식 교역액이 1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8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 북중 공식 교역액은 6천990만달러(약 829억7천만원)로, 8월 2천878만2천달러(약 341억6천만원)보다 142.8% 증가했다. 이는 트럭 등을 이용한 북중 육로교역이 드물게 목격됐던 지난해 7월 7천384만3천달러(약 876억5천만원) 이후 최대치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9월 북한의 대(對)중국 수입은 전월 대비 146.7% 증가한 5천562만8천달러(약 660억3천만원), 대중국 수출은 128.7% 늘어난 1천427만2천 달러(약 169억4천만원)였다.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이 1천만달러를 넘은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

년 월평균 대중 수출(1천793만3천 달러)의 80% 정도까지 올라선 수준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 교역은 수입이 수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였다. 2019년 9월 대중 수출은 1천620만달러, 국경봉쇄 여파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월 대중 수출은 1천30만6천달러였다.

9월 북중 교역의 세부 품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상당수는 페로실로콘인 것으로 전해진다. 페로실로콘은 제철산업에서 쓰이는 탈산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품목이 아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은 지난 봄까지 압록강에서 생산된 수력발전 전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페로실로콘 비중이 7월 33.3%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52.1%로 올라서며 전기 수출액을 뛰어넘은 바 있다.

다만 아직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 등에서 육로교역 재개는 목격되지 않았으며, 대다수는 해상을 통해 교역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연합뉴스, 10월 18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평화의 아이들
 저자: 김진숙
 출판사: 북루덴스
 발행일: 2018년 11월 05일
 가격: 16,000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종플루 당시 사용된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백신이 되어가고 있다. 급변 코로나19 백신들은 대체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서둘러 개발되어 나온 백신이기에 어떤 이들은 그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필수적인 대안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도 각국의 국력에 따라 그 보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2차 접종을 넘어 부스터 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아직도 백신 확보

에 애를 먹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가 56개국이나 된다고 한다.¹ 이러한 접종 부족의 원인으로 WHO 관계자는 백신 불평등을 언급했다. 즉 백신 공급이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북한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북한은 국가 주도의 무상 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낙후된 의료 장비와 부족한 전력 공급, 그리고 의약품의 부족 등

¹ 전세계백신접종률양극화↑...WHO "56개국 10% 목표달성 못해", 동아닷컴, 21.10.0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06/109577263/1>>

으로 인해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는 현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 문제는 사람들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인도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김진숙 씨의 저서 “평화의 아이들”은 남북 의료 협력 분야에서 수고해 온 저자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던 16년도 말까지의 경험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고난의 행군 당시까지도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의료인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기근으로 인한 북한의 어려움과 특별히 아이들의 고통을 타국에서 접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민간 단체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원료의약품과 제약장비 지원 사업, 구역 병원 지원 사업, 왕진가방 사업, 영유아 지원사업, 백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그 경험과 기록을 책으로 정리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남북 의료 협력의 필요성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부족한 의약품과 영양공급으로 고통 받는 그 땅의 아이들과 환자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이 담겨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원된 물자가 전용되어 다른 목적으로 잘못 쓰여

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의료 부분에서의 협력이라면 지원 물자들이 결국 환자를 살리거나 질병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것이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외에도 북한에는 다양한 전염병에 대응할 백신과 의약품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은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 받지 않고 추진되길 바란다.

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의 중요성이 행간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아무래도 돕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겉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원을 하는 나의 의견을 지원 받는 당신들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이 책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주문한다.

저자가 만난 북한의 관리들과 부서들은 종종 답답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이기도 했다. 사업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저자와 활동가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북한의 조직과 시스템을 알게 될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각 부서의 담당 영역이나 명령 체계, 그리고 북한 내 의료 시스템 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때 불편함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

고, 북한에 맞는 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왕진가방 사업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평양의 병원에서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호담당과와 호담당의사제도에 대해 듣고 북한의 로동신문 등 관련 자료를 뒤져가며 북한의 보건체계를 공부하는 가운데 호담당의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왕진가방 사업을 추진하여 큰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사업은 이후 다른 단체들까지 퍼져 왕진가방 사업이 여러 단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 발전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의 독특한 의료시스템에 맞는 지원을 통해 긍정적 열매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정보의 부족 속에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북한의 보건 시스템과 보건 실태에 대해, 또 각종 사업들에 대해 많은 정보와 기록이 정리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도 각종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이제는 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북한의 보건 의료에 대한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현명한 이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여러 자료와 기록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남북 의료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이 열린다면 그 때의 기록이 유용하

게 활용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분야는 다르더라도 이렇게 돌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노력들을 통해 함께 연합하여 북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왠지 모를 감사와 책임감, 동료애도 생기는 듯하다.

이 책의 많은 사업은 그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16년도 이후 중단되었다”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북 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와 정치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많은 사업이 첫 삽은 떴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 책을 읽는 필자도 아쉬움이 드는데 직접 사업을 진행한 저자는 얼마나 아쉬움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말씀 선포와 함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환자들이 치유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닌 영혼의 생명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기독 의료인들과 활동가들이 “그리스도의 사신(使臣)”으로서 의료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북녘에서 나눌 수 있길 소망하며 남북 의료 협력이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공감대가 남북 공히 형성되길 바란다. ☺

1.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그와 유사한 수준의 구금 시설들이 최근 신설, 확장되는 정황이 있다는 연구와 보도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수용소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강제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석방의 희망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통제와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 수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 속히 철폐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신앙을 이유로 갇혀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여러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숨죽이며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 오지로 추방되어 지금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의 후손들, 그리고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들을 기억하며 북한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를 하루속히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통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복음의 유산이 회복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3. 강화된 통제 속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전해져 온 북한 내부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실한 의료체계 속에서 코로나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앓아 눕거나 죽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국경 통제와 밀수 단속 및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 통제가 강화되어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마당도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 불리는 외부사조 통제 법을 만들어 주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처벌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통제 기조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책이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와 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급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더욱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그 추위가 매우 혹독합니다. 겨울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충분한 식량과 떨감, 의약품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일 수 밖에 없는데,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통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주민

북한 기도 제목

들과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제3국에서 북한 선교에 힘써 오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선교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교 사역도 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계속된 감청과 감시의 위협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지를 지키며 사역을 이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 국가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현장사역자들이 신앙 활동을 이유로 잡혀가거나 추조를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신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2021 북한선교학교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학교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각 순서 맡은 강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북한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북한 선교에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남한사회는 대선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각 예비후보들의 외교안보-북한관련 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의 과정에서 북한-통일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창의적인 대북정책이 개발되며 남한사회에 북한문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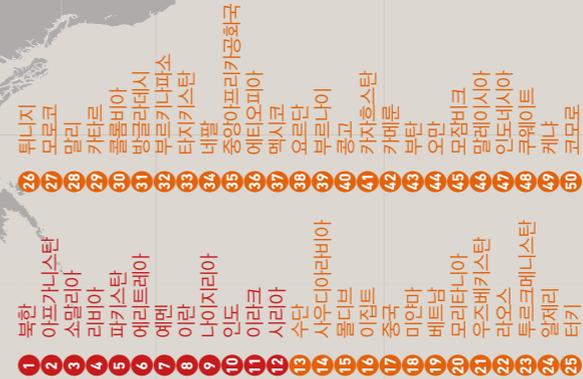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11월 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수위를 정한, 북반구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현황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사외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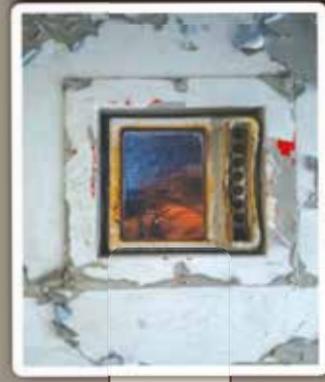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 버티거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아홉 명의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다모데 형제

"너희도 함께 간히 것 같이 간히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81133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www.opendoors.or.kr





2021 오픈도어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2021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선교학교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선교 참여의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강의 일정

- 기간: 10월 12일-11월 30일 (8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 주제: 복음의 현장에서 북한을 품다

3. 강의 목록



날짜	주제	강사
1강 (10월 12일)	북한 선교 개론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2강 (10월 19일)	북한의 사상과 체계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고신통일선교원 원장,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3강 (10월 26일)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디모데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4강 (11월 2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대표)
5강 (11월 9일)	탈북자 사역과 국제 NGO의 북한선교	팀 피터스 Tim Peters (Helping Hands North Korea 대표)
6강 (11월 16일)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 사역자
7강 (11월 23일)	해외 북한선교현장	
8강 (11월 30일)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선교	

(강사 및 일정 변경 가능)

4. 접수

- 9월 1일 - 10월 6일까지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4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50% 할인)

5.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는 오픈도어선교회